

# 죽고 사는걸 버리면 아무 걱정없어

## 19면에서 계속

음선원을 찾아오고 싶어서 겨울 날 밤 차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당에, 바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이 법당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해서 스님 앞에 한번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이었고 또 여수로 공명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제 걱정은 바늘 끝도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스님이 부신에 오시거나 어디 가시면 제가 그 뒤를 따라서 먼발치에서 스님 법문 듣고 왔다갔다 하면서 스님을 존경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어저께도 그냥 한번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법당에는 본인 신도들만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저는 정교소에 한 마음선원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마음요전을 읽으면서 '아, 생활하는 게 곧 불행이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경계에 부딪치면 한마음요전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붙들고 올라오는 그것도 가리안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 빈손·빈발되는 도리

처음 왔을 적에는 남편 하는 일이 조금 안돼서 마음을 한번 풀어놔야 하는 상태였구요. 지금은 딸 셋을 키우고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양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만 스님께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언제 이렇게 정면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또 있겠나 싶은 마음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스님께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언제 이렇게 정면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또 있겠나 싶은 마음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교라는 것은, 고는 삶이고 불은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는 데도 그냥 사니까 사나 보다 하고 살고 계시지만은 전체를 본다면 너무나 천차

만별이고 너무도 많아요. 갖춰야 될 문제들이요, 알아야 할 문제들이요, 가난하게 살든 밥을 못 먹든 밤비에 손가락을 몇 개 꼬아놓고 잘 먹었다 하는 집안이란 잘 차려놓고 먹는 집안이란 간에 하려면 이 공부는 꼭 하셔야만 되겠죠. 가난하면 가난해서 빨리 해야겠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빨리 해야겠고 돈이 없다가 좀 생길까 하면 쓸데가 지루 생겨서 없어지니 또 해야겠고 가정이 불편하니 해야겠고 어떤 거든지 부처님 법에는 거론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십프로 밖에는 모르겠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난스럽고 어떻게 권리가 있고 어떻게 괴로움이 있고 이런

데니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뜻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소리 잘하죠. 전지중도를 그쪽에서도 가져와야 이쪽에서도 이어준다 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하려면 앞으로는 살림하면서 살림이 도(道)라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꼭 이 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살아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하는 것을 자세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자세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 하실려면, '우리 두 부부가 너를 위해서

## 발을 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 놓도록

## 누구나 에너지 창고 자불 지니고 있어

문제에만 고달랐지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걸 모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편안하면 과거에 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고 또 지금 고통스럽고 아주 고난스러우면 과거에 내가 참 못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앞면은 미래에는 모두 자식들이 관하게 살게 되겠지. 그건 말지 않은 겁니다. 자식들도 요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전자에 선지식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고집고 착한 사람 또는 가난하고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내가 발을 떼어놓고 사는지 떼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놓는구나 하는 걸 철저히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놓을 줄자 자식들도 다 관하게 될 겁니다. 아, 모두 학교 때 문에도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전에 오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다가도 나중에 자신들이 공부 하셔서 병이 다 낫고, 또 나은 것은 둘째 치고 자손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해나가고, 공부를 못하면 단돈 열마가 됐든 정성을 들이시니까요. 그렇게 하

모습은 낳았지만 내가 태어날 때 과거의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생명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꼭 알려주시고요.

옛날에 어느 사람이 공부를 하러 절로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하는데 강원에 가는 사람들은 학인이고, 선사들의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죠. 그런데 스님들이 한 다섯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니 "들어오지 못하데도 있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끈 못 봤는나? 새끼를 매놓는데 끈 못 봤는나?" 그러니까 "끈은 봤습니다마는 새끼도 보고 어른도 보고(대중웃음) 밤에 앉아 계신 어른도 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 때 저거하구나 하는데 넋죽 넋죽 들어와서 앉으니까 어떡합니까.

### 주장자를 때리는 뜻

그래서 "들어오지 못할 데를 들어왔으니깐 한번 때리러" 하고 주장자로 한 대 치니까 "아이, 그거 참 자리가 편안하더니 주장자가 들어오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제 주장자가 부족해서 스님이 주장자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 사람이 죽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는 지금 귀신 방구씨를 못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단다." "귀신 방구씨를 찾으러 왔어?" "예" "그거를 바깥으로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바깥이고 안이고 간에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



그림·최주현

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 귀신이 말을 하는데 여기 오면 귀신 방구씨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을 해?" 그러구선 또 잠자코 있더니 또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귀신한테 여길 가면은 아주 기쁘기도 엄청 좋고 아주 키우기도 좋고 참 좋은 데라고 그러면서 막아놔서니까 그걸 박하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이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을 한 명 부르더니만 "한 방망이씩 때려봐라. 매가 뭐나 때려봐라" 그러니까 "그럼 한 방망이씩 가서 안기거든요. 한 방망이씩 안기니까 맞고 하는 소리가 "어이구!" 그러면서 "방구씨도 때려니까 아프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방구씨는 얼었구만." "아, 방구씨는 얼었는데 방구씨를 기를 줄은 몰라서 그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방망이 더 때려봐라." 그러니까 벌써 일어서면서 하는 소리가 함장배를 하고는 그냥 고요히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절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고이 기르고 어떻게 먹어서 잘 기를 수 있나. 방구씨를 말입니다. 귀신 방구 씨를 얻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으며 뭐를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방망이로 때린단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를 몰라도 안 맞고 일어서서 급게 절을 하더라고요. 무슨 연고로 그렇게 급게 절을 했는지 모르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을 올광갈광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은 죄송한 말이 아닙니다. (대중을 향해서) 대중: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하다고 해서 털음이 거기 붙을까요? 허허허...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 막론해놓고 더

불어 같이 부처입니다. 왜 부처냐. 자 불을 누구든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바로 자불이자 불성이자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장자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내 본 마음이, 예를 들어서 배가고 파서 소나무 가지를 잘라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가장자리에 그거만 남죠? 그러면 소나무도 내 머리 자른 것처럼 아플 거란 말입니다. 아프고도 슬프없이 되죠. 그래서 맨 끝에 가장기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구 하나 먹어. 이렇게 만났으니 인연인데 뒷가지는 자르지 말고 아래가지만 잘라 먹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하구선 잘라서 물을 빨아 먹을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자리 회초리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 속에 들은 하얀 그 물만 빨아먹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세 모금만 마셔가지 더 마시면 안된다 이러거든요. 세 모금이란 뭐니까.

### 우리는 모두 텔런트

우주 삼세를 말해도 되고 삼일을 말해도 되고 그런 거죠. 삼년을 말해도 되고 삼십년을 말해도 되고요. 그렇게 된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모금만 마시지 더 마시면 안된다고 그러서 그걸 먹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아, 물도 살아 있고 우리가 물 불 흙 바람으로 생명들이 돼서 모습들이 생겨서 하는 것도 이 지수화풍 때문에 모두가 먹고 살고 또 지수화풍을 먹고 사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모금을 한 모금으로 때웠죠. 한 모금을 먹고 세 모금이 다 들어갔네 하나가 삼세 한꺼번에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들린 말입니다. 뜻으로.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하나하나 배워나간 게 나중에 다 터지는 것이 처음에는 견성이 되고 성불이 되고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한꺼번에 알리고 애 쓰지 마시고 살아나가면서 하나하나, 먹는 것도 먹는 사이 없이 먹어지는 거로구나. 우리는 모두 텔런트 역할을 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하는구나. 이거는 누가 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끔 아무리 잘 살래도 안되는 거죠. 억지로로는 못해요. 자기가 타고 나온 것을 가지고만 사는 거죠. 이천원 가지고 나왔다면 이천원만 가지고 평생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이천원도 삼천원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전부 없어지는 거죠. 자유껏 사는 거죠. 그러니 자유자재하시고 잘 사십시오. 오늘 절광하게 말을 했다고 하지 마시구요. 절광한 속에 시원한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 법문은 2000년 10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적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불자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10cm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소재지: 대구 ◁  
011) 9729-8246

###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산 도랑
- 평수: 약 800평
- 특징: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상, 지장전, 남불당불사주을 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 사찰 (급) 안내

- 위치: 충남 천안 (인천 체인지에서 5분거리) 경관 수려하고 명당 임
- 부지: 대지 300평
- 종교부지 800평 총 1100평
- 평당: 목조 29평, 요사 30평
- 점당: 7억
- 특징: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41) 557-8815

### 사찰부지 혹은 전원주택지 (급) 매매

- 위치: 울산광역시 은양
- 부지: 과수원 2600평 田 530평
- 임야: 8천평 (준 농림지)
- 경관이 수려하고 전원 주택지 혹은 사찰부지 조지 임 대형 차량 진입 가능
- 가액: 10억

011) 568-4417

• 산봉우리와 같은 이마  
• 엄정스러운 눈  
• 제멋대로 자란 수염  
■ 주문 신청 접수 중  
▶ 가격: 100,000원  
액자포구 구입자 부담  
Tel: 054)284-4309  
山僧 임학 書伯

###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소재지: 목포 ◁  
061)464-3485  
011)636-7022

### 포교당 안내

- 위치: 신도시 화정 전철역 (중심상가)
- 크 기: 160.8평 (법당 80평, 방5, 명상실, 주방, 욕실) 시설 완비
- 가액: 답사 후 결정

017)353-2623  
011)9118-8929

### 토굴 안내

- 위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 2리
- 평수: 40평
- 가액: 700만원

016)793-3337

###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운천동
- 평수: 65평, 방3개, 주방, 샤워실
- 특징: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41-3195

### 포교당 안내

- 위치: 마야 3거리
- 평수: 46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일체 무료

02)941-3195

### 탈종 공고

- 사 입 명: 鍾修庵 (중수암)
- 소속중단: 대한불교 법화종

상기 사찰은 청진주 및 신도회의 결의에 의해 본사암은 금후 대한불교 법화종의 종지와 종풍에 따를 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편리 (중공) 산 96-2  
중 수 암  
주 지 감 대 일 창 건 주 서 명 복  
대 한 불 교 법 화 종 총 무 원 장 귀 하

### 사찰 안내

- 위치: 새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 사찰 안내

- 위치: 광명시 소이리 지하 자동차 공장 옆산
- 부지: 750평 • 법당: 주사포 목조 30평, 시설 A급, 지하 30평
- 요사채: 목조 20평, 지하 20평
- 산신각: 5평, 최광실 조립식 17평
- 특징: 신세수려하고 물 좋고 남굴당 그린 시설 유차. 남서쪽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 시내 버스 12번 종점 5분거리. 차량·사할까지 진입가능 주차장 40대분 완비
- 일당가액: 19억 5천만원(운영차스님연리바람)

02)899-4281

### 사찰 안내

- 위치: 전북 군산시
- 대지: 720평
- 법당: 50평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기공 방 (각각 있음)
- 가액: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